



크리스찬 김

변호사

## 특정채권자 우대행위

### 파산 관재인이 소송 통해 회수 가능

채무자가 귀하에게 상환한 돈을 반환 하라고 하는 서신을 파산 관재인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? 그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고소할 것이라고 합니까? 채무자가 파산을 신고할 때 채권자는 파산 관재인에게서 고소될 것을 예상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파산 신청일 전 90일 이내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상환을 받으면 바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러한 상환금을 특정채권자 우대행위라고 합니다.

특정채권자 우대행위란 무엇일까요? 특정채권자 우대행위란 파산한 채무자가 파산 신고일 전 90일 이내에 과거 부채를 지불한 것을 말합니다. 특정채권자 우대행위가 되려면 채무자가 우대행위 당시에 지불 불능이었어야 하고, 채권자는 첵트 7 파산에서 채권자로서 받았을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

았어야 합니다. 특정채권자 우대행위는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일 전 90일 이내에 이루어진 상환에 관한 것이지만, 파산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지불한 것도 특정채권자 우대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가족, 친척 또는 사업 파트너인 채권자에게 특정채권자 우대행위가 이루어졌다면, 이러한 상환은 잠재적으로 특정채권자 우대행위로 간주하여 파산 관재인이 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.

또한, 특정채권자 우대행위는 실제로 상환을 받은 채권자에게 유익이 되었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우선지불금을 받는 채권자가 단지 상환된 자금의 전달자로서, 즉 채권자가 그 자금을 단순히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보관한다면, 파산 법정은 채권자가 특정채권자 우대행위로부터 유익을 받지

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.

전달자 변론 외에도 채권자가 특정채권자 우대행위 소송에서 제기할 수 있는 다른 많은 변론이 있습니다. 그러한 변론에는 ‘새로운 가치’ 변론, ‘통상적인 비즈니스 과정’ 변론, ‘통상적 비즈니스 조건’ 변론 및 ‘동시 교환’ 변론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특정채권자 우대행위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통상적인 사업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다면, 이는 파산 관재인이 특정채권자 우대행위 주장에 대한 변론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. 파산 관재인은 법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잠재적인 특정채권자 우대행위를 조사하고 주장할 의무가 있습니다. 첵트 11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특정채권자 우대행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. ▶문의:(213) 368-5000, ckim@dumas-law.com